

그땐 그랬지...

우물에 빠진 날



아침 저녁으로 시원한 바람이 불고
후덥지근한 늦여름 하늘은 높아지기 시작할 즈음
아이들은 잠자리 잡기에 분주했습니다.



담장 밑 꽃밭에서도 잡기도 하고
장독대에 앉아있는 잠자리를 잡기도 하고
잡으려다 실패하면
잠자리는 근처 다른 곳으로 옮겨 앉죠.



어릴 적 시골마을엔 우물이 있었습니다.
6~7세의 작은 소년의 키에 비하면
거의 가슴 높이나 되는 높다란 우물이었죠.
여름내내 두레박만 문제없으면
마을 사람들에게 시원한 물을 제공하던
고마운 우물이었죠.
우물 위로 지나가는 빨래줄에는 잠자리가
앉아있곤 했습니다.



한 아이가 잠자리채를 휘둘러보지만
키가 너무 작습니다. 갑자기 아이는
우물 위로 기어 올라갑니다.



그리곤 힘차게 잠자리채를 휘둘러 봅니다.



그러나 어이쿠 중심을 잃고
우물 속으로 푹땀 빠져버렸습니다.
키 작은 꼬마에게는 우물이
상당히 깊습니다.



허우적거리는 아이에게 천만다행으로
옆집 사는 얼룩무늬 교련복을 입은 까까머리 고등학생 형이
꺼내 주는군요.



갑자기 벌어진 일에
매우 놀라
영영 우는 아이를
옆집 형이
달래주었던
기억이
있습니다.

